

# REUTERS WEEKLY NEWSLETTER

Monday, Jan 21, 2019 (2019-4 호)

- [주간 국내 일정](#)
- [주간 해외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전망](#)
- [지난주 주요 기사](#)

- ◇ (칼럼) 침체로 향하는 글로벌 경제
- ◇ (칼럼) 유가, 2023년까지 배럴당 65-70 달러 부근 맴돌 듯
- ◇ (초점) 경기 둔화에도 코스피로 돌아오는 외인...밸류에이션과 연초 우호적 이벤트들
- ◇ (초점) 수년래 최악 캐리환경 직면 채권운용사들의 크레딧물 '올인'..스프레드 본격 축소되나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이메일: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mailto: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독일 프랑크푸르트 주식시장에서 한 트레이더가 거래를 준비하고 있다. (로이터/카이 파펜바흐 기자)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월18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1,121.9	-0.5%	-0.6%	-4.1%	유로	1.1361	-0.9%	-0.9%	-4.4%
100엔 대비	1,024.8	0.4%	-0.9%	-6.9%	엔	109.76	-1.1%	-0.2%	2.8%
유로 대비	1,278.2	0.2%	-0.1%	0.2%	위안	6.7795	-0.2%	1.4%	-5.3%
위안 대비	165.91	-0.5%	-2.5%	1.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8(%)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8(%)	다우존스	24,706.35	3.0%	5.9%	-5.6%
코스피	2,124.28	2.3%	4.1%	-17.3%	나스닥	7,157.228	2.7%	7.8%	-3.9%
코스닥	696.34	1.5%	3.1%	-15.4%	S&P500	2,670.71	2.9%	6.4%	-6.2%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MSCI APxJP	498.78	1.6%	4.5%	-16.2%
국고채 3Y	1.814%	1.0bp	-0.3bp	-31.8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국고채 5Y	1.895%	1.8bp	1.1bp	-45.9bp	미국채 2Y	2.616%	7.3bp	11.8bp	60.7bp
국고채10Y	2.008%	1.6bp	6.0bp	-52.1bp	미국채 10Y	2.788%	8.9bp	9.7bp	28.0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8(%)	CDS프리미엄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유가(WTI)	53.80	4.3%	18.5%	-24.8%	한국 5Y	33.28	-1.68	-4.79	-13.74
금(현물)	1,280.95	-0.5%	-1.7%	-1.5%	일본 5Y	21.25	-1.08	-0.54	-3.34
TR상품지수	2,379.99	-0.4%	0.4%	0.0%	중국 5Y	58.28	-3.36	-8.19	16.96

(달러/원 서울거래 기준, 기타 환율 로이터 호가 기준) (©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THOMSON REUTERS

## 주간 국내 일정

### <1 월 21 일(월)>

- IMF, 수정 세계 경제전망(17:00)

### <22 일(화)>

- 한은, 12 월 생산자물가지수(06:00)
- 한은, 4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08:00)

### <23 일(수)>

- 특이 일정 없음

### <24 일(목)>

- 한은 금통위 정례회의, 기준금리 결정
- 한은, 2019 년 수정 경제전망(13:30)
- 기재부, 2 월 국고채 발행계획(17:00)

### <25 일(금)>

- 한은, 1 월 소비자동향조사(06:00)
- 한은, 12 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12:00)

## 주간 해외 일정 (한국시간)

### <1 월 21 일(월)>

- 일본, 1 월 로이터 단칸 (08:00)
- 일본, 1 월 닛케이 제조업 PMI 잠정치 (21~23 일 중 발표, 09:30)
- 중국, 12 월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11:00)
- 중국, 12 월 산업생산 (11:00)
- 중국, 12 월 소매판매 (11:00)
- 중국, 4 분기 GDP (11:00)
- 미국 휴장

### <22 일(화)>

- 일본은행(BOJ) 통화정책회의(~23 일까지)
- 세계경제포럼(~25 일까지)
- 미국, 12 월 기존주택 판매 (자정)

### <23 일(수)>

- 일본, 12 월 수출입 (08:50)
- 일본은행(BOJ) 통화정책회의 결과 발표 및 하루히 코 구로다 총재 기자회견(11:3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1:00)
- 미국, 11 월 주택가격 (23:00)
- 유로존, 1 월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자정)

### <24 일(목)>

- 유럽중앙은행(ECB) 정책회의 후 금리 발표 및 마리오 드라기 총재 기자회견(21:45)
- 유로존, 1 월 마르키트 제조업(서비스업) PMI 잠정치 (18:00)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2:30)
- 미국, 1 월 마르키트 제조업(서비스업) PMI 잠정치 (23:45)
- 미국, 12 월 경기선행지수 MM (자정)

### <25 일(금)>

- 미국, 1 월 캔자스시티연은 제조업지수 (01:00)
- 일본, 1 월 도쿄 소비자물가지수(CPI) (08:30)
- 미국, 12 월 건축허가 수정치 (22:00)
- 미국, 12 월 내구재주문 (22:30)

<외환시장>

- 시장에서는 주초 나올 중국과 한국의 4 분기 및 연간 GDP, 중국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20 일 기준 한국 수출입현황, 미국 주요 기업 실적 결과 등을 통해 국내외 펀더멘털 변화를 가능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주에 열리는 일본, 한국,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는 모두 동결될 것으로 폭넓게 전망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각국 중앙은행의 향후 경기 전망과 평가에 더욱 주목할 듯하다.
- 미-중 무역협상 진전 기대에 시장심리가 개선되는 가운데 증시 반응과 외인 수급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 시장심리 개선과 부진한 펀더멘털이 서로 맞서며 원화는 기존 박스권 흐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예상 거래범위: 1110-1130 원

<채권시장>

- 이번 주 채권시장은 제한적인 변동성 속에 등락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 중국의 경기 부양 등이 국내 증시를 얼마나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 그동안 신흥국 증시를 압박했던 미중 무역분쟁 우려가 완화되고 있는 게 최근 주가 반등의 주요 모멘텀이다. 여기에 중국 당국이 본격 부양에 나선 것 역시 한국 증시에는 즉각적인 반등 요소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당장 상반기에 인하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만큼 현 수준에서 시장금리는 기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 24 일로 예정된 1 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연이은 경제 걱정 발언으로 본인의 스탠스를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낸 바 있다.
- 시장참가자들은 올해 성장을 전망과 물가전망치 수정폭을 보며 한은의 스탠스를 가능해보려 할 것이다. 다만 큰 폭의 경제전망 하향 조정이 있지 않다면 시장금리는 제한적으로만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설연휴까지는 현재의 제한적 변동성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칼럼) 침체로 향하는 글로벌 경제**

■ 관련 그래프 모음:

<https://tmsnr.rs/2HfQKH5>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런던 (로이터) -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모멘텀을 되살릴 뭔가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올해 침체를 향하고 있다.

11 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기선행지수는 99.3 으로 하락해 2012 년 10 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7 년 말에는 100.5 까지 상승했었다.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성장 모멘텀이 둔화된 지 좀 되었지만, 11 월에는 미국과 독일에서도 일시적인 모멘텀 둔화 조짐이 나타났다.

이미 주식시장과 기업 서베이들에서 나타난 부진을 감안할 때 다음달 발표될 12 월 경기선행지수는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지난해 꾸준히 악화돼왔고, 이제 앞으로 수축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

◆ 침체

지난 50 년간 지수가 99.3 아래로 떨어질 때마다 거의 항상 미국에 침체가 찾아왔다. (1970 년, 1974 년, 1980 년, 1981 년, 1990 년, 2001 년, 2008 년)

단 한번의 예외는 1998 년으로, 아시아 금융위기 후 폭풍으로 글로벌 경제가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성장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그 때에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경제가 버티고는 있지만 악화 신호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 정보를 다양한 모델에 적용해보았을 때 불가피하게 상당한 악화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논평은 1998 년 9 월 FOMC 가 이례적으로 가졌던 특별 컨퍼런스콜의 기록에 담겨있다.

1 주일 뒤 연준은 금리를 인하했다.

#### ◆ 화물 운송 둔화

미국 외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은 2018년 4분기 분명한 성장 둔화 조짐을 보였다.

미국에서도 공급관리협회(ISM)의 12월 제조업지수는 2008년과 2001년 침체 이후 가장 급격한 성장세 하강을 나타냈다.

2018년 강하게 성장했던 글로벌 교역량도 2018년 말로 가면서 둔화 조짐을 보였다.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공화물 허브이자 글로벌 교역의 프록시인 홍콩국제공항의 항공화물 물동량은 4분기 전년동기비 1.6% 감소했다.

홍콩 민간항공국에 따르면 홍콩의 항공화물 물동량은 12월에만 전년동월비 5%가 줄었다.

#### ◆ 경착륙?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은 2019년 성장 둔화를 예상하고 있지만, 정책결정자들은 명백한 침체보다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책결정자들은 기업과 소비자 심리를 유지시키기 위해 거의 항상 연착륙을 목표로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

경험상 경제는 붐과 슬럼프를 증폭시키는 많은 수의 긍정적 피드백 메커니즘을 특징으로 한다.

경기 확장세는 기업 투자와 고용, 소득, 소비자 지출과 주가가 서로를 강화시키면서 가속화되는 경향을 갖는다.

그러나 경제가 일단 모멘텀을 잃기 시작하면 이 모든 요인들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상호작용해 둔화를 심화시킨다.

연착륙이 아직 가능한 하지만, 글로벌 성장세를 촉진할 뭔가가 일어나지 않으면 경착륙 가능성이 더 높다.

정책결정자들이 침체를 피하길 원한다면 두 가지 옵션이 있다.

첫 번째, 미국의 금리를 인하해 글로벌 금융 여건을 완화한다.

두 번째,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를 이루어 무역 긴장을 완화하고 기업 심리를 복돋운다.

그러나 정책결정자들이 이 두 가지 대안 중 하나에 관여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제의 모멘텀은 계속 둔화돼 침체로 향하게 될 것이다.

#### (칼럼) 유가, 2023년까지 배럴당 65~70 달러 부근 맴돌 듯

■ 관련 그래프 모음:

<https://tmsnrt.rs/2HebsXA>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런던 (로이터) - 유가가 2020년까지 현재 수준에 머무른 후 2023년까지 배럴당 평균 65~70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에너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간 로이터 여론조사에서 전망됐다.

지난 8~11일 1,000명 이상의 에너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나온 유가 전망치는 최근의 유가 약세에도 불구하고 2018년 초 실시된 지난 연간 조사 전망치에서 배럴당 5 달러 미만으로 내렸다. 지난 3년 전망치와도 크게 차이가 없다.

브렌트유 장기 평균 가격은 배럴당 70 달러 수준으로 전망됐다. 작년 기록한 배럴당 72 달러와 멀지 않다.

올해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65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016, 2017, 2018년 전망치와 동일하다.

2020년에도 배럴당 65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전망치보다 5 달러 혹은 그 밑으로 하락했다.

미국 셰일유 생산량이 급증하며 공급 부족 우려가 완화되자 2020년 말까지 유가가 100 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크게 줄었다.

2020년 유가가 평균 90 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 또한 2016년의 13%에서 올해 3%로 감소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망치가 60~80 달러 내에서 나오며 2023년 유가는 여전히 평균 70 달러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 수준에서 소비 성

장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 업계 종사자들

조사 응답자 중 26%는 탐사, 시추, 생산, 정제, 마케팅, 현장 서비스 등 원유 및 가스 생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타 전문가들은 은행 및 금융업(18%), 연구(9%), 전문 서비스(9%), 헤지펀드(8%), 실물상품거래(6%) 등에 종사하고 있다.

원유 및 가스 산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응답자들의 결과는 기타 분야 응답자들의 결과와 유사했다.

업계 종사자들의 올해와 내년 유가 전망치는 외부 전문가들에 비해 소폭 높았지만 내년 전망치의 경우 배럴당 1.5 달러 수준으로 거의 유사했다.

#### ◆ 불확실성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응답자들은 올해와 내년 유가 전망에 대해 더 확신을 보였다.

올해와 내년 유가 전망은 응답자들 간 거의 유사했지만, 2021~2023년 유가 전망치는 더 다양했다. 그럼에도 향후 5년 간 유가가 배럴당 평균 55 달러 이하로 떨어지거나 85 달러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거의 없었다.

각각의 전망치에 대해 표준 편차로 측정한 단기 및 장기 불확실성 수준은 지난 4년간 거의 유사했다.

석유 및 가스 사업 종사자와 외부 전문가들 사이 전망치에도 불확실성 수준은 비슷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가까운 미래에 유가가 현재 수준 또는 약간 더 높은 수준으로 온건한 변동성을 기록하며 원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초점) 경기 둔화에도 코스피로 돌아오는 외인...밸류에이션과 연초 우호적 이벤트들

서울 (로이터) 박윤아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 영향 등과 관련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오히려 서울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들의 순매수 행진이 이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지난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한 뒤 17일에도 오후 현재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어 지난해 8월 말 이후 최장 순매수 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연속 순매수 기간 동안 외국인은 1조원 넘게 순매수했다.

지난해 코스피가 연간 기준 17.28% 하락해 2008년 이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고, 한국과 중국 경제지표가 눈에 띄게 부진해진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전환은 눈길을 끌고 있다.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코스피 하락이 가팔라졌고 올해 들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 심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국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미-중 무역분쟁에 의한 수출 부진 우려로 코스피 PER(주가수익비율)이 10월 이후 급락해 지난 1월 3일에 9.36을 기록하며 2009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12월 월간 기준으로도 PER은 9.58을 기록해 역시 2009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제 기업 실적에 비해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아주 낮다"고 평가하며 "현재 코스피는 가격 측면에서 볼 때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설명했다.

▲ 하락 주도했던 전기·전자가 외인 매수 행진도 이끌어

1월 들어 본격화한 중국의 경기 부양책, 도비시해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스탠스, 미-중 무역분쟁의 완화 기대감은 그간 제기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더 심화하는 것은 억제했다.

김형렬 교보증권 센터장은 "(외국인 자금 유입은) 글로벌 경기 둔화가 생각보다 급작스럽게 오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보여준다"며 "앞으로 무역분쟁 해소, 브렉시트 이슈에 따라 코스피 반등폭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시가총액 기준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은 31.3%로 24개월 만의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7년 10월 34%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꽤 낮아진 것이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외인 자금 유입은 시장에 좋은 신호"라며 "코스피 상승 흐름은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져 최대 2500 선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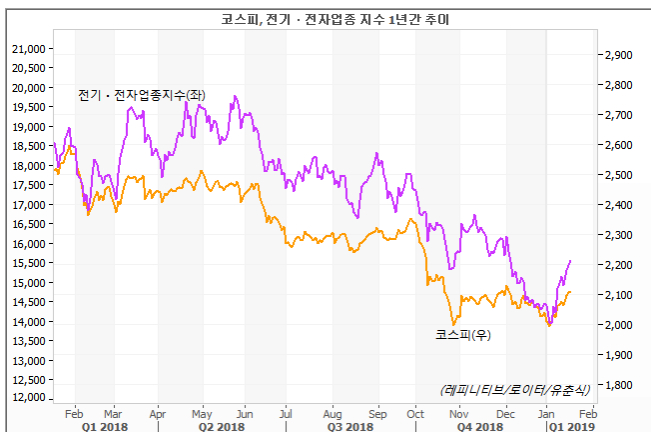
자본시장연구원의 황 연구위원도 상승 추세를 전망하면서 "올해 코스피는 새로운 박스권으로 전이될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2000 선 근처에서 저점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하락기에 순매도가 집중됐듯이 이번 외국인 순매수 행진이 집중된 곳도 전기·전자 업종이다. 삼성전자의 4분기 어닝쇼크에도 올해 외국인 순매수가 집중된 곳은 전기·전자 업종이다.

지난 8일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메모리 수요 부진으로 전년비 30% 급감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것은 2년 만에 처음이다.

박성순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부진한 4분기 잠정 실적 발표에도 전기·전자 업종에 저가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며, "삼성전자 실적은 올해 3분기부터는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전기·전자 업종 PER은 5.88로 1년 전 9.88과 비교해 거의 절반으로 내려섰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초점) 수년래 최악 캐리환경 직면 채권운용사들의 크레딧물 '올인'..스프레드 본격 축소되나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지난해 연말부터 가속화한 시장금리 하락으로 국내 채권운용사들의 자금 조달금리와 통안채, 국고채 등 주요 운용상품의 금리가 불거

나 역전되면서 상대적인 스프레드 매력이 부각된 크레딧물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다만 경기 부진 전망으로 시장금리가 급락한 상황에서 수급 왜곡으로 크레딧물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데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다.

▲회사채 발행, 연달아 흥행..캐리 노린 수요 몰리며 '청신호'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포문을 연 회사채 발행 시장은 이번 주에 본격적인 흥행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60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던 CJ제일제당과 3000억원의 회사채 발행을 예정했던 KT가 각각 1000억원, 2000억원씩 증액해 발행하기로 한 데 이어 전날 진행된 한국전력의 5년물 회사채 2000억원 입찰에도 6100억원이 몰리며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한전 5년물의 경우 14일 민간평가사 금리 1.997%보다 1.1bp 낮은 수준에 발행됐는데 이는 국고채 5년물 민평금리(1.86%)보다 불과 11.7bp 높은 수준이다.

향후 시장 전망도 낙관론 일색이다. 이달 중에 앞으로 GS칼텍스(AA+, 3000억)와 현대제철(AA0, 3500억), SK인천석유화학(AA-, 3000억), LG유플러스(AA0, 3000억), 롯데쇼핑(AA+, 2500억), 현대오일뱅크(AA-, 1500억), 엔씨소프트(AA-, 1500억) 등이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 최근 수요예측에서 연달아 오버부킹이 났던 것을 감안하면 우량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발행에 나서는 이 회사들 역시 상당한 수요를 끌어모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회사채 스프레드도 축소 흐름이다. 지난 주말 30bp 수준이었던 AA- 등급 1년물 회사채 스프레드는 전날 28bp로 축소됐다. 지난 주말부터 통안채 1년물 등 단기물 시장에선 매도세가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회사채 시장에선 매수가 절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회사채 시장의 비상(飛上)은 역캐리에 직면한 채권운용기관의 상황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15일 종가 기준 통안채 1년물 금리는 1.825%고 잔여 만기가 11개월 이하인 통안채의 경우 모두 1.80%를 하회하고 있다. 국고 3년 18-9 역시 1.792%로 여전히 1.80% 밑에서 거래됐다.

반면 증권사 등의 자금 조달 기준이 되는 레포금리는 1.80% 수준이어서 통안채나 국고채로 자금을 운용할 경우 캐리를 거의 기대하기 어렵거나 역캐리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A 증권사 채권운용부장은 "올해 돈 버는 환경이 최근 몇 년 만의 최악인데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게 사실상 크레딧물 말고는 없다"며 "현재 3년 이자율스왑(IRS) 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하고 있는데 IRS를 비드하면서 크레딧물을 매수하면 어느 정도 캐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은행채 시장도 고공행진..'나중에 독 될 수도'

캐리 매력도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는 것은 은행채도 마찬가지다. 단기물 금리가 연초에 급락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았던 은행채 역시 인기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

지난 주말 기준으로 13bp였던 1년물 AAA 은행채 스프레드는 15일 기준으로 9bp까지 축소됐다. 일반 시중은행의 경우 양도성예금증서(CD)와 달리 은행채 발행 잔액은 예대율 산정시 인정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연초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특수은행 위주로만 은행채 발행이 주로 이뤄졌지만 최근 투자수요 증가와 함께 발행 여건이 개선되며 시중은행들도 시동을 걸고 있다.

발행시장뿐 아니라 유통시장에서도 물건을 구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당분간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시장참가자들의 전망이다.

다만 미국과 중국을 위시한 글로벌 경기의 둔화 전망으로 국고채, 통안채 등 안전자산 금리가 급락한 상황에서 크레딧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의 예상대로 경기 둔화가 본격화될 경우 크레딧 스프레드는 오히려 확대되는 쪽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기업의 본질적인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수급에 의해 다시 크레딧물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한다면 향후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B 증권사 채권본부장은 "캐리 없이 시작하니까 올해는 정말 힘든 장이 될 것 같다"며 "절대금리를 추구하는 북은 조달금리나 고객에게 제시하는 금리 대비 채권 일드 갭이 있어야 운용을 할 수 있는 만큼 1bp라도 캐리가 더 나오는 걸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렇게 수급으로 크레딧물 시장이 다시 과열될 경우 나중에 다시 독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시장의 경기침체 전망이 과도하든가 아니면 시장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